

전국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 '농도' 전남쌀

공동브랜드 '풍광수도' 흡소핑 등 올 매출 76억...서울·제주도 진출 영광 등 '10대 쌀' 부산·영남권 진출...18일 광주서 쌀의 날 기념식

오는 18일 '쌀의 날'을 앞두고 '농도(農都) 전남 쌀이 전국에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전남 10대 브랜드 쌀'은 전국 456개 롯데슈퍼 소비자들과 만났고 전남 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도'의 올 매출은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21개 RPC(미곡종합처리장)은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쌀의 62%를 타사도에 판매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전남지역 양곡 매출액은 2077억원으로 나타났다.

'풍광수도' 쌀의 7월 말 기준 매출액은 76억원(판매량 3231t)을 넘겨 올해 목표액인 100억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16억원(814t) 보다 375% (60억원) 뛸 금액이다.

'풍광수도' 쌀은 지난 달 11일, 14일 흡소핑 전문 채널 '공영흡소핑'에서 총 1만 1245세트(6억1000만원 상당) 판매기록을 세웠다. 두 차례의 방송에서 풍광수도는 준비된 물량을 '완판'하는 것을 넘어 목표치의 150%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한 달 간 온라인쇼핑몰 '위메프'와 '티몬'에서 판매활동을 펼치며 온라인 판매처를 다졌다.

풍광수도의 선전에는 전남농협과 참여농협RPC가 함께 모여 만든 '풍광수도 쌀 시장개척단'이 상당 역할을 했다. 풍광수도는 한때 '흔한-저가쌀'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지난 2016년 단일품종 '신동진 쌀'상등급으로 탈바꿈했다.

'시장개척단'은 올해 온라인·흡소핑 판매 강화와 수도권 진출에 전략 초점을 맞

췌다. 풍광수도는 지난 달 농협수원유통센터에 납품된 뒤, 이달 4-5일 전국 하나로마트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농협장동유통센터와 고양 농협삼송유통센터에 잇따라 입점했다. 지난 3월에는 제주도에 첫 판매를 시작해 제주도할인마트협동조합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풍광수도'의 '전남 10대 브랜드 쌀'도 전남 쌀 매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5월 '10대 쌀' 가운데 우수상을 차지한 영광 쌀 '사계절이 사는 집'은 13일부터 부산·영남권 중대형 마트인 '트라이얼 마트' 등 10개 매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됐



전남 쌀 '풍광수도'

쌀로, ▲해남 한눈에반한쌀 ▲담양 대소밭은쌀 ▲영암 달마지쌀 골드 ▲함평 나비쌀 ▲보성 녹차미인쌀 ▲순천 나누우리 ▲강진 프리미엄호평 ▲무안 황토랑쌀 ▲화순 자연속애순미 등이 있다.

다.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이날부터 이들 간 현지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판매처를 늘릴 계획이다.

'10대쌀'은 소비자와 전문가가 직접 뽑는 브랜드 쌀로, ▲해남 한눈에반한쌀 ▲담양 대소밭은쌀 ▲영암 달마지쌀 골드 ▲함평 나비쌀 ▲보성 녹차미인쌀 ▲순천 나누우리 ▲강진 프리미엄호평 ▲무안 황토랑쌀 ▲화순 자연속애순미 등이 있다.

전남 쌀 가공식품도 포화상태인 관련 시장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여는 '쌀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농업회사법인(주)담양한과명진식품의 쌀과자 '스위트스타'와 담양 고려전통식품의 '기순도 전통 쌀식혜'가 선보여 질 예정이다. 이들 식품은 농식품부의 '우수 쌀 가공식품'으로 선정됐다.

정향재 전남농협 양곡자재단 차장은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지역 RPC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이 적극적으로 판촉 활동을 벌여 다양한 시장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협RPC 중심 계약재배와 단일품종 유통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광 쌀 '사계절이 사는 집'으로 부산·영남권에 첫 진출한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13일 부산지역 한 마트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쌀1kg 증정행사를 펼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25.83 (-16.46)	↓ 금리(국고채 3년)	1.15 (-0.03)
↓ 코스닥	590.75 (-3.42)	↑ 환율(USD)	1222.20 (+6.00)

금호타이어 노조, 단체교섭안 또 부결

조합원 2523명중 55% 반대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을 또 부결했다.

13일 노조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전날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2523명 중 찬성 1147명(45%), 반대 1376명(55%)으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측은 단체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29일 단체교섭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2월13일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5월17일 새로 선출된 노조 집행

부와 교섭을 재개해 한 달 여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26~27일에는 노조가 찬반투표를 했으나 투표용지 오류로 투표가 중단됐다.

잠정합의안은 ▲설비 투자 및 인력 운영 추진 ▲광주공장 이전 관련 노사 공동태스크포스팀 구성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한도 상향 ▲성형직 근무수당 월 1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만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금호타이어는 2분기부터는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등 10분기만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전 등 5개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MOU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13일, 한전 본사에서 감사역량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각 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교차(합동)감사를 위한 전문분야 인력지

원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 등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각 기관 감사인들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통한 업무 추진방향 설정과 상호 협업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26일 서울서 '국제 광융합 비즈니스페어'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가 오는 26일부터 서울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국제 광융합 비즈니스 페어'를 연다.

13일 광산업진흥회는 전남 코엑스에서 '국제 광융합 비즈니스 페어' 개최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대표 및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 행사 내용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준비 현황 등을 나눴다.

'광융합 페어'에는 광융합조명·광ICT·광부품·광에너지 등 광융합 기업 170개사가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광융합산업발전포럼, 광융합산업 기술확산 교류회,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조명 설명회, PLC기반산업 발전전략 기술교류회, 전략산업 광융합 기술 포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보해양조 "터무니 없는 루머에 큰 피해...허위 매각설 강력 대처"

광주·전남 대표 주류회사인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일본 자본에 매각됐다는 루머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매각설 등을 확산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 등 법적조치를 통해 엄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보해양조는 13일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매각설' 등 터무니 없는 루머로 인해 기업 이미지 등에서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 등 매각설 등이 불거질 때마다 수 차례에 걸쳐 사



임지선 대표

"지난 1950년 목포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69년간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성장

실이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계속해서 루머가 확산되자 유포자를 적발하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회사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시키는 사람을 제보해주는 경우 포상

해운 광주전남 대표 기업"이라며 "최근에는 보해가 일본 자본에 팔렸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여수, 고흥, 담양 등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면서 기업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전체 주주 2만365명 중 외국인 주주는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독일 등 54명이며, 이 중 일본인 주주는 단 한 명도 없다.

보해양조는 회사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시키는 사람을 제보해주는 경우 포상

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루머에 대한 음성 녹취나 동영상 촬영 등 제보자료는 이메일(bohae@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박찬승 홍보팀장은 "보해양조는 목포에 본사를 두고 장성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원 대부분이 광주전남에서 살고 있는 광주전남 기업이자 한국 기업이다"며 "일본기업으로의 매각설은 사실이 아님에도 터무니 없는 루머가 또 다시 유포되는 것은 악의적인 것으로, 이같은 루머를 확산시키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호남동 대원 빌딩 층별

"특별분양"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분양가 470만원 ~

" 추천 업종 "

- 1 높은 전용률 확트인 전망
여유로운 주차 (300대 이상 주차공간)
- 2 불링장, 골프존 10~12층
11, 12층 천정고 6m
- 3 특급 한방병원 4~9층
일반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A.P.T 모델 하우스 1~3층

분양문의 : (주) 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